

JP베트남 뉴스레터

지금 베트남 기업들은... Phu Tai Group



Phu Tai 그룹은 크게 석재가공, 원목가구 제조 그리고 자동차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1994년 베트남 국방부 직속산하 5th Military Region의 기존 Truong 건축자재 회사를 포함한 3개 회사의 합병 계획으로부터 설립되어, 공식적으로는 1996년 베트남 국방부의 No. 482/QD-QP 결정에 따라 다낭과 호치민 시에 각각 대표 사무소를 두며 출발했다. 이후 2000년에는 일본 도요타 자동차 거래 및 수리 전문대리점으로 업무영역을 확장, 2004년에 주식회사로 탈바꿈한 뒤부터는 공격적인 투자와 M&A로 석재가공 및 원목가구 제조 분야로 역시 빠르게 확장해 나가며 오늘날 베트남을 대표하는 500대 기업 중 하나가 되었다.

특히 원목가구 제조분야에 있어서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 연 2700개 컨테이너 분량의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유럽, 아시아 등지로 수출되는 수출액은 연 6,000만USD에 달한다. 또한 석재가공 분야에서는 전국에 분포한 11개의 산하 가공회사가 연 5,270만m³에 달하는 채석량을 소화해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요타 자동차 거래 및 수리 전문대리점으로서 다낭 시와 빈딘 성에 분포한 35개의 지점을 통해 연 6,520만USD에 이르는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2011년에서 2018년까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베트남 기업 TOP 500 및 2018년 포브스 선정 베트남 50개 기업에 포함되었을 정도로 Phu Tai 그룹은 계속해서 베트남의 성공 신화를 써가고 있다.

출처: [PhuTai\(링크\)](#), [굿모닝베트남\(링크\)](#)

Phu Tai 그룹, 3분기 역대 사상 최고 순이익 달성

Lợi nhuận trước thuế của Phú Tài những quý gần đây (tỷ đồng)



Phu Tai 그룹이 사상 처음으로 2000억 VND의 분기당 세전 수익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회사는 올해 회사 수익 목표율의 76%를 달성하게 되며, 이는 Phu Tai 그룹이 2011년 HOSE에 상장된 이후 달성한 가장 큰 이익 규모이다. 예상대로 작년 총 수입액의 53%를 차지한 원목가구 제조 분야가 이번에도 대부분의 이익을 벌어들였으나, 이번 분기에는 회사가 2018년 정관자본 1,000억 VND를 들여 설립한 Phu Tai 부동산회사가 창출한 이익이 처음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 한편 Phu Tai 그룹은 4분기 순이익 1640억 VND를

△Phu Tai의 분기별 수익(단위: 10억 VND)/출처: VietnamBiz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로써 당초 올해 목표치 수입액의 95%, 순이익 1% 초과 달성을 점치고 있다.

출처: [VietnamBiz\(링크\)](#), [PhuTai\(링크\)](#)

주요기사

다낭 시, 디지털 전환 지수 전국 1위

2020 디지털 전환 지수(Digital Transformation Index, DTI) 보고서에 따르면 다낭 시가 디지털 정부, 디지털 경제, 그리고 디지털 사회 세 가지 평가 분야 모두에서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작년 처음으로 각 지자체와 부처 단위 등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DTI 점수를 매기기 시작했다. 앞으로 매년 발간될 보고서는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 방향성에 대한 지침과 이들 지자체 및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처 중에서는 재무부가 가장 높은 DTI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BizHub\(링크\)](#)

호아팻 그룹, 3분기 예상 초과 수익 달성

철강기업 호아팻 그룹(Hoa Phat Group)이 3분기에 각각 38조9000억, 10조350억 VND의 매출과 세후 수익을 달성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56% 늘어난 수치이며, 그동안 8200억~8700억 사이로 점쳐졌던 예상수익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베트남철강협회(VSA)는 호아팻 그룹이 건설 철강 시장에서 올해 9개월 간 31.7%의 시장점유율을 차지, 업계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280만 톤에 맞먹는 생산량이라고 밝혔다.

출처: [VietnamBiz\(링크\)](#)

국경경비대, IUU어업 단속 강화

베트남 국경경비대(Vietnam Border Guard)가 어부들의 IUU어업활동(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활동)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가 베트남 수산물에 대해 발행한 '경고'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전에 유럽위원회는 효과적인 어선 통제 관리체계의 미비, 원산지 증명에서의 EU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총 9가지의 개선 권고사항을 내린 바 있으며, 이로부터 베트남 수산물 수출업체는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

따라서 국경경비대는 이 같은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의 일환으로 해안 순찰 회수를 늘리고, 벌금액수를 높이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대부분의 베트남 어부가 외국 영해 침범과 관련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데에 기반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강화에도 힘쓰게 된다. 다만 베트남 연안의 어족자원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현상과 여전히 선박들을 감시할 장비가 마땅치 않은 점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보인다.

출처: [VietnamNews\(링크\)](#), [KMI\(링크\)](#)

금융

SSI, 4분기 금리 소폭 인하 전망

SSI 증권 보고서는 올해 4분기 금리가 현재보다 조금 더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베트남 국영은행은 지난 7월의 신용대출이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전년 동기 대비 15.1% 늘어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YoY(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막 기지개를 펴기 시작한 기업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금리인상에 있어서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무역적자 상황 역시 균형점을 찾아갈 것으로 보이고, 외환시장에서의 안정적인 환율 흐름 역시 향후 큰 폭의 금리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출처: [VietnamBiz\(링크\)](#)

생명보험시장, 외국계 회사 약진

베트남 생명보험시장에서 외국계 회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현재 베트남 생명보험시장은 상위 5개 기업이 전체의 78.7%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중 유일한 베트남 기업이자 시장점유율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Bao Viet Life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점유율 하락에 직면하고 있는 반면, Manulife, AIA, Dai-ichi Life 등 외국계 보험회사들이 장기보장성 상품 확대를 무기로 그 빈자리를 빠르게 메워가고 있다. 한편 코로나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로 손해보험시장은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 [VIR\(링크\)](#)

푸토 성



2021년	최저임금(đ)
Region 1	4,420,000
Region 2	3,920,000
Region 3	3,430,000
Region 4	3,070,000

비엠티시 Region 2/
푸토 지역 및 푸닌, 림타오,
타인바, 땀농 Region 3/
나머지 Region 4

명칭: Phú Thọ

성도: Việt Trì (1급시)

교통: 2, 32A, 32C 고속국도/ 비엠티
항구/ 윈난-하노이 철도

GRDP: 40조8,900억 VND (2018)

연간성장률: 8.34% (2018)

베트남 북부 홍강 삼각주 끝에 위치하며

인구 140만 명, 면적 3,532km²에

달하는 지역이다. 총 1,374개의 역사
문화 유산을 자랑할 정도의 성인만큼,
매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이다.

주요 산업으로는 제지, 비료, 화학,
섬유와 봉제, 차와 목공품이 있다. 이 중
특히 차 산업은 베트남에서 차

재배면적이 가장 큰 지역이자 푸토

성에서 자체적인 브랜드 제작에 나설

정도로 지역 자부심을 갖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신규 공단이 점차 완성되며

부동산과 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출처: [인사이드비나\(링크\)](#)

Tam Nong 공단

면적: 350ha

입지: Hanoi 80km/ Noi Bai 국제공항 60km/ Hai

Phong 항구 180km/ Viet Tri River Port 7km

전기: 110/22 KV (35KV)

비용:

- 임대료: 35-50 USD/m² (관리비 0.25 USD/m²/연)
- 전기료: 0.062 USD/kWh
- 물 사용료: 0.53 USD/m³
- 폐수 처리: 0.35 USD/m³

출처: [Kland\(링크\)](#)

Trung Ha 공단

면적:

입지: Hanoi 60km/ Hoa Lac Hi-Tech Park 35km/ Hai

Phong 항구 190km

전기: 110/22 KV (35KV) 발전소당 용량 110/22 KV

비용:

- 임대료: 60 USD/m² (관리비 0.25 USD/m²/연)
- 전기료: 0.062 USD/kWh
- 물 사용료: 0.41 USD/m³
- 폐수 처리: 0.3 USD/m³

출처: [Kland\(링크\)](#)

LG디스플레이 (LG Display)

LG디스플레이·하이퐁 시의 ‘상생’관계

LG그룹 주요 계열사 베트남 법인 1분기 당기순이익

구분	베트남 법인 순이익	전체 순이익	비중
LG전자	1,968.15	11,691	17%
LG디스플레이	1,645.33	2,658	62%
LG이노텍	985.64	2514	40%



단위: 억원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IT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LG디스플레이의 공격적인 투자 행보가 매섭다. 지난 9월 하이퐁 OLED 모듈조립공장에 14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승인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로써 2016년 25억달러를 시작으로 지난 2월 7억5000만 달러를 합쳐 하이퐁 법인에 대한 총 투자액은 46억5000만 달러에 이른다. 이번 투자로 OLED 패널 생산량은 기존 월 900~1000만 장에서 월 1300~1400만 장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격적인 투자의 배경에는 앞으로 IT용 즉, 태블릿이나 PC 모니터, 노트북 등에 들어가는 중형 OLED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존 투자가 TV를 만드는 대형 OLED나 모바일 등 소형 OLED에 집중되었다면, 추후 애플의 신제품 출시 등에 발맞추어 중소형 OLED 시장에도 선투자를 진행해 미리 대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로부터 현재 TV용 OLED, IT용 액정표시장치(LCD) 시장에서 보여준 세계 1위를 또 한 번 석권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갖고 있다.

한편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지 근로자 고용이 1만 4000여 명에 육박하는 등 하이퐁 시 최대투자자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 또한 베트남 법인에서의 순이익이 전체의 62%에 달하며 LG디스플레이와 하이퐁 시는 이제 떼려야 뗄 수 없는 상생관계의 표본으로 성장했다. 한편 LG디스플레이 외에도 같은 계열사인 LG전자, LG이노텍이 각각 베트남에 진출하며 베트남은 LG그룹 전체 차원에서 ‘포스트 차이나’ 전진기지이자 글로벌 생산 거점 역할로 거듭나고 있다.

출처: [ChosunBiz\(링크\)](#), [매일경제\(링크\)](#), [아주경제\(링크\)](#)

베트남 진출 연대기

LG 디스플레이의 베트남 진출은 2016년 4월 5일 총 40헥타르에 이르는 부지에 자본금 1억 달러를 들여 하이퐁 시와 모듈조립공장 설립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동안 해외생산법인 대부분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던 것로부터 다각화를 추구하고, 동시에 베트남 인건비가 중국의 30%에 불과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또한 젊은 층 인구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가까운 하이퐁 시의 지리적 위치로부터 중국으로의 수출이 손쉬울 것이라는 계산 역시 깔려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7년 7월 양산체제에 들어서기 시작한 이후 LG 디스플레이는 현재까지 꾸준한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 투자의 배경에는 이미 중국에 추격당한 LCD 시장을 벗어나 후발주자들과 기술 격차가 있는 OLED 시장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올해부터 그간의 사업 재편 과정에서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베트남 R&D 센터 건립 계획 발표 등 국내외에서의 채용을 크게 늘리며 본격적인 수익창출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출처: [서울경제\(링크\)](#), [AseanExpress\(링크\)](#)

본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dhlim@jplawvn.com/+82 10 6796 8845

법무법인 제이피의 뉴스레터는 베트남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 사무소의 법률 자문 또는 공식적 견해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jplaw@jplaws.com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